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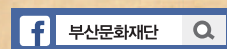
가장 빠른 <부산문화재단> 소식! 실시간 공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카카오톡 친구찾기에
[부산문화재단]을 검색 하신 후
친구추가를 해주세요.



부산문화재단
최신소식 공유하기



예술창작지원은
어떻게 받나요?

@부산문화재단



문화행사 사진은
인스타그램으로!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감만동)
T. 051 744 7707 F. 051 744 7708 ~ 9
SNS관련문의 기획홍보팀 051-745-7223~4

조선통신사

JOSEON TONGSINSA JOURNAL · SPRING 2016 봄호

雪後寒梅雨後山有時容易
畫時難早知不入時人眼多
買臘脂西牧丹

東華述齋寫
散甲申夏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사 진 | 숙종37년통신사행렬도(肅宗37年通信使行列圖)
설 명 |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한국 측
등재 목록 중 여정의 기록에 속한 그림
사 행 년 | 1711년
제 작 자 | 倭喜左衛門
제작연대 | 1711년
소 장 처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통신사

JOSEON TONGSINSA JOURNAL · SPRING 2016 봄호

CONTENTS

권두칼럼 04 조선통신사! 교류의 유산을 미래로 자산으로
부산광역시장 | 서병수

성신교린 06 민간 문화 교류의 의의
NPO법인 소세카이 이사장 | 마쓰오 토시카즈

기획특집 09 한·일 공동 등재 '외교기록'에 대하여
-유네스코 등재를 위하여
광주여자대 서비스경영학과 교수 | 정성일

ZOOM IN 조선통신사 14 1763년 통신사행 사람들, 불귀의 객이 되다
부산대 사학과 교수 | 김동철

新조선통신사 18 아버지의 '조선통신사' 한국과 일본을 달리다
NPO법인 '신기수'와 조선통신사를 연구하는 청구문화홀 이사 | 신이화

문화프리즘 21 간사이에서 한국을 걷다
봉생문화재단 부이사장 | 최화수

조선통신사 24時 22 2016 조선통신사축제 "기억하고, 잇고, 전하다"
부산문화재단 국제협력팀

조선통신사 갤러리 26 통신사의 옷 이야기-일본인의 눈에 비친 조복(朝服)
동명대 패션디자인학과 교수 | 이주영



〈표지 설명〉

사 진 | 묵매도(墨梅圖)
설 명 |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한국 측
등재 목록 중 문화교류의 기록에 속한 그림
사 행 년 | 1763~1764년
제 작 자 | 변박(卞璞)
제작연대 | 1764년
소 장 처 | 부산박물관

발 행 일 2016. 3. 31 발행인 이문섭
발 행 처 (재)부산문화재단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감만동) Tel 051. 744. 7707
편집위원 최화수(편집주간), 한태문, 김동철, 박화진, 이철호, 백태현
편집기획 국제협력팀 Tel 051. 744. 7707 www.tongsinsa.com
디자인·제작 효민디앤피 Tel 051. 807. 5100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 본지에 게재된 글이나 자료를 재사용하려면 (재)부산문화재단과 저작권자 양측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조선통신사 저널은 (재)부산문화재단 및 조선통신사문화사업 홈페이지에서 웹진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부산광역시 2016년 조선통신사 한일 문화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조선통신사! 교류의 유산을 미래로 자산으로

朝鮮通信使! 交流の遺産を未来に、資産に



서병수 + 부산광역시장
徐秉洙 + 釜山広域市長

釜山は日本と地理的に最も近い韓国の都市で、過去から現在まで日本との外交および貿易において中心になっている。約400年前に、朝鮮通信使は善隣使節として両国の関係回復や文化交流に決定的な役割を果たしており、その中心には釜山があった。今の日韓関係の中、両国が進めている朝鮮通信使のユネスコ記憶遺産登録は、未来の子孫に日韓関係の平和と共同繁栄の道を歩んでいく上で道しるべになるだろう。

부산은 대한민국 제1의 국제 무역항을 가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관문도시이자 국제적인 문화관광도시입니다. 바다와 강, 산이 공존하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삶의 정주공간을 만들었고 오랜 역사를 통하여 우리 학문과 문화를 밖으로 전하기도 했으며, 근대사의 어머기에는 외래문물을 받아들이는 창구가 되기도 하는 등 부산은 국제적인 교류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키워 왔습니다.

특히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맑은 날 부산 태종대에 오르면 육안으로 쓰시마가 보일 정도로 지리적으로 가깝고 시모노세키시·후쿠오카시와 자매도시 관계를, 오사카시와는 우호협력도시 관계, 요코하마시와는 파트너도시 관계를 체결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부산-후쿠오카 포럼」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책으로 「조광역 경제권 구상」 실현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등 일본과의 교류가 가장 활발한 도시입니다.

이러한 부산과 일본의 활발한 교류는 과거에서부터 전개되어온 문화 교류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과거 일본인 집단 거류지역인 왜관이 설치되었던 지역이며 조선통신사의 최종 출발지로 명실상부한 한일 간 문화교류의 중심지였습니다.

국제적 문화 교류는 눈앞의 목적과 이익을 좇거나 경쟁을 위한 단기적 안목의 자기선전이 아니라, 먼 안목으로 인류 보편적 가치의 확산과 나눔을 위한 문화의 교류가 되어야 하며 자국민에게 타 문화를 경험하고 서로 다른 문화 간의 대화와 소통의 기회와 공간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작용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선시대 일본으로 통신사가 왕래하면서 양국 간의 평화를 유지시키고 문화를 교류했던 역사를 돌이켜 본다면 조선통신사는 한일 간의 갈등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민간 교류의 매개체이자 양국이 공유한 미래지향적인 역사 문화 콘텐츠임을 부산시는 잘 인식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 및 양국 간 문화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한일 간 정치, 외교적 현안이 산적한 때 조선통신사를 영접한 쓰시마번의 외교관이 자 유학자였던 아메노모리 호슈의 '속이지 않고, 다투지 않고, 믿음을 통해 사귄다'는 말은 양국 선린우호 관계의 교과서 같은 말로 양국 모두가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현재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하여 한일 양국이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혹했던 임진왜란을 뒤로 하고, 두 나라 관계 회복의 결정적인 가교가 되었던 조선통신사의 발자취와 업적을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통하여 다시금 확인하고 조선통신사 정신이 지니는 의미를 재발견할 수 있다면, 한일 미래의 후손들에게 양국 간 선린우호 관계 형성에 상당한 교훈을 던져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이문섭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부산문화재단 여러분의 노력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부산시에서도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노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산문화재단의 무궁한 발전과 조선통신사 한일 문화 교류 사업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민간 문화 교류의 의미

草の根文化交流の意義



마쓰오 토시카즈 + NPO법인 소세카이 이사장
松尾 俊和 + NPO法人翔青会 理事長

「日本では韓国語は何時間授業しますか？」

国際交流の初参加の際、釜山の中学生にこう質問されたことが、私の文化交流の起源である。それまでの私にとって“韓国”は、ただの隣国であった。2003、NPO翔青会の活動を開始し、草の根交流を続けてきた。いざ交流を重ねてみると、膝を突き合わせて顔を見、肌で感じる異国の友は遠い親戚よりも確実に身近にいることが分かる。海を隔てていても心が通じ合っている部分が存在することが分かるのである。

2001년 부산시와 기타큐슈시의 교육자 국제 교류에 참가 권유를 받고 당시 한창 사춘기를 겪고 있던 중학생인 둘째 아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어 함께 부산의 모 중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다. 당시의 경험이 필자의 문화 교류 시발점이 되었다.

그때 부산의 학생들에게 “일본에서는 한국어 수업을 몇 시간 합니까?”라는 질문을 받았다. 나는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말문이 막혔다. 여태껏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테마였기 때문이다. 필자는 “일본 중학교에서 배우는 외국어는 영어뿐입니다.”라고 대답하자 “왜요? 제일 가까운 나라인데.”라며 질문한 학생이 이상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그 학생은 순수한 마음에서 질문을 했겠지만 그 순간 나는 눈이 번쩍 뜨였다. 부끄럽지만 당시 내게 ‘한국’이란 단지 이웃 나라에 불과했으며 가깝지만 단 한 번도 방문한 적도, 의식한 적도 없던 나라였다. 그런 나라의 중학생으로부터 받은 다양한 질문들은 실로 충격적이었으며 내 자신의 무지와 미성숙함을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



2003년에 NPO법인 소세카이[翔青会]의 활동을 시작한 이래 문화 교류를 계속해 왔다. 부산의 많은 예술가와 무용단을 기타큐슈로 초대했으며 2008년부터는 조선통신사축제에 참가하여 기타큐슈시의 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국교라는 큰 틀에서 보면 우리들의 활동은 미비하고 작을지 몰라도 지속적인 민간 교류를 통해 양국의 문화가 왕래하고 그 속에서 작은 기쁨과 발견을 공유하는 것으로 참가자 간의 우정은 확실해졌으며 더욱 굳건해졌다.

아무리 민간 교류라고 해도 협력자와 지지자가 있어야 성립된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가 성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조선통신사에 대해 배우고 나서 이런 믿음이 더욱 강해졌다.

우리 NPO법인 소세카이는 기타큐슈시에 위치해 있어 조선통신사와 인연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역사를 살펴보면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명령에 따라 조선을 공격한 쿠로다번[黒田藩]의 지배하에 있었으며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은 관광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다. 한 일관계에 있어서 정치적으로는 뼈적거리는 소리가 들려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정에 국경은 없다고 나는 확신하고 있다. 가령 많은 친구가 있는 나라와 전쟁한다고 상대를 적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아마도 필사적으로 ‘전쟁 반대’를 외칠 것이다. 그러한 민중의 목소리가 클수록 정부는 무시할 수 없다. 그러한 관계를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민간 교류’이다.

처음에는 가느다란 한 줄의 실일지 몰라도 시간을 들여 땅으면 튼튼한 끈이 되듯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넓혀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 아닐까 생각한다. 지금은 인터넷의 보급으로 SNS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의 장이 존재하며 전세계의 사람들과 쉽게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시대에기에 얼굴을 마주하고 몸짓과 손짓을 교환하고 열심히 상대방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 그리고 그러한 기회가 더욱 절실하다. 진보하는 글로벌화, 그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알력을 회피하기 위해서, 특히 청소년의 국제 교류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민간 교류의 중요성을 더욱더 절감하고 있다.

많은 만남 속에서 이문화를 배우고 대화하는 것으로 파생되는 다양한 영향은 보이지 않았던 ‘자국’의 역사와 문화를 만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그러한 경험을 앞으로 미래에 우리들의 국가를 젊어지고 갈 청소년들에게 전하고 싶다.

지금 우리들은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어 하는가, 어떤 활동에 중점을 두는 사회를 만들 것인가를 묻는 시험대에 놓여진 게 아닐까. 국교를 정치와 행정만으로 생각하는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 이제부터는 개개인의 책임에 의거한 자발적 활동이 요구되는 시대로, 교류를 통해 이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청소년을 육성해야 나가야 할 것이다.

옛날 많은 지혜와 문화와 기술이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전해졌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조선통신사의 한국과 일본이 서로 차이를 인정하고 진실로 교류해야 한다는 '성신교린(誠信交隣)'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평화적인 역사 가치를 탄생시킨 공적에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 조선통신사를 기점으로 그 이전에도 또 그 이후에도 크고 무거운 짐과 대립이 지금까지 이어져 여전히 서로의 국가를 좋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다. 그러나 막상 교류를 하다 보면 무릎을 맞대고 얼굴을 마주하고 피부로 느끼는 이국의 친구가 먼 친척보다 더 가깝게 느껴진다.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도 마음이 통한다는 것이 느껴진다.

옛날 조선통신사 행렬에 실제로 참가하여 고생하셨던 분들이 지금의 상황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 자신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기뻐하실 수 있도록 진심 어린 교류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작년 2015년은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의 해였다. 100주년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서로의 국가와 문화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이며 서로의 긍지를 배척하지 않는 것이다. 한일우호의 초석을 세운 조선통신사의 기록은 교류를 계속하는 우리들의 '원전'이라고 절감한다.

조선통신사가 이동한 경로를 '행복이 왕래하던 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미래가 올 수 있도록 앞으로도 민간 교류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한·일 공동 등재 '외교기록'에 대하여

日韓共同登録「外交記録」について



정성일 + 광주여자대 서비스경영학과 교수
鄭成一 + 光州女子大 サービス経営学科 教授

外交記録とは、国家機関の公式記録や外交文書を指す。朝鮮の場合、通信使の派遣に関わる全般的な内容を含む『通信使謄録』が代表的である。日本の徳川幕府の将軍に送られた朝鮮国王の「朝鮮国書」などもそれに当たる。この記録物には両国の政治権力者が善隣友好を構築し、それが続けられることを望む意思が反映されている。財団法人釜山文化財団とNPO法人朝鮮通信使縁地連絡協議会がこの資料をユネスコ世界記憶文遺産の登載対象として選んだ所以もそこにある。

1. '외교기록'의 개요

한국과 일본의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유네스코에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신청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서 화제이다. 한국에서는 재단법인 부산문화재단이, 일본에서는 NPO법인 조선통신사연지연락협의회가 그 주체이다. 신청 주체는 이른바 '조선통신사(朝鮮通信使)' 기록물이다. 이에 대해서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소개되었다. 이 글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등재 대상 기록물 중에서 '외교기록'에 한정하여 그 줄거리를 서술하고자 한다.¹⁾

1. '외교기록'의 범주

'외교기록'이란 "조선과 일본의 국가기관이 작성한 공식 기록과 외교문서"를 말한다. 예를 들면 "조선의 경우 통신사 파견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통신사등록(通信使謄録)』 등 조선왕조가 편찬한 기록"을 들 수 있다. "조선 국왕이 일본 도쿠가와와 쇼군(장군)에게 보낸 「조선국서(朝鮮國書)」 등 외교문서"도 거기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들 기록과 문서에는 두 나라 정치 권력자가 선린우호를 구축하고 그것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의사가 반영되어 있다." 바로 이 점이 앞의 두 민간단체가 '외교기록'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대상으로 선정한 기본 취지라고 말할 수 있다.

'외교기록'의 범주가 이번에 신청하는 『통신사등록』, 『변례집요』, 「조선국서」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위에 소개한 기록과 문서 외에도 '외교기록'의 범위에 넣을 수 있는 다른 기록물이 더 있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¹⁾ 이번 한일 민간단체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대상 기록물은 크게 세 분야로 이루어져 있다. '외교기록', '여정의 기록', '문화교류의 기록'이 그것인데, 이 글에서는 '외교기록'에 대해서만 소개하고자 한다.

2. '외교기록'의 내용

'외교기록'으로서 한국 측이 선정한 등재 대상은 『통신사등록(通信使謄錄)』과 『변례집요(邊例集要)』이다. 그리고 일본 측에서 선정한 것은 『조선국서(朝鮮國書)』와 『조선통신사(朝鮮通信使)』예물목록(禮物目錄)이다. 각각의 기록물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 측이 등재 대상으로 선정한 '외교기록'은 2건 32점이다. 두 가지 모두 서울대학교 규장각(奎章閣)에 소장되어 있다. 『통신사등록』과 『변례집요』에 대해서는 자세한 해제(解題)가 이미 학계에 소개된 바 있다(정연식 1991, 김동철 2013, 하우봉 2006, 손승철·김강일 2010).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위 사료 자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피하고자 한다. 다만 “『통신사등록』이 1641~1811년 통신사행에 관련된 공문서(公文書)를 예조(禮曹)에서 등사(謄寫)하여 유형별로 묶은 문서”라는 점, 그리고 “『변례집요』는 1598~1841년까지 조선 후기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기록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 둔다.

일본 측이 등재 대상으로 제시한 '외교기록'은 모두 3건 15점이다. 이 자료의 소장지는 교토대학 종합박물관(京都大学総合博物館)과 도쿄국립박물관(東京国立博物館), 아마구치현립 아마구치박물관(山口県立山口博物館) 이렇게 세 곳이다.

이 중 “1607년과 1617년 조선국서는 조선과 일본 사이에 단절되어 있던 국교의 회복을 서둘렀던 쓰시마번(對馬藩)에 의해 개작(改作)된 것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 국서가 현실적으로는 외교문서로서 그 기능을 다하여, 특이한 형태로 재개되었던 양국 간 국교 회복 실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점에 주목하여 일본 측이 이것을 이번 등재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 필사본은 도쿠가와[徳川] 장군가[將軍家]의 모미지야마문고(紅葉山文庫)에 보존·전래되어 오던 것을 현재는 교토대학 종합박물관과

도쿄국립박물관이 보존·공개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교토대학 종합박물관에는 1607년과 1617년 사행 때의 국서 3점이, 그리고 도쿄국립박물관에는 1617~1811년 사행 때의 국서 15점이 각각 소장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아마구치현립 아마구치박물관의 소장 자료는 1711년 통신사행 때 통신사가 조수번주(長州藩主) 모리 요시모토[毛利吉元]에게 선물한 예물의 종류와 수량을 적은 목록”이다.

II. '외교기록'을 둘러싼 논점

1. 통신사 명칭

조선시대 한일관계의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조선 국왕이 일본 최고 권력자에게 파견한 사신'을 가리켜 '통신사(通信使)'라고 부른다. 그런데 일본 학계에서는 그 앞에 '조선'을 붙여서 '조선통신사(朝鮮通信使)'라고 쓰는 것이 보통이다. 아마도 이것은 '조선에서 온 통신사'라는 의미일 것이다. 그런데 일본 학계의 통신사 연구 성과가 한국에 소개되면서 한국 학계에서도 '조선통신사'라는 용어를 그대로 쓰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하우봉(河宇鳳) 교수가 비판을 제기하였다. 그에 따르면 “당시 조선에서는 '조선통신사'라 부르지 않았으며, 오히려 '일본통신사(日本通信使)'가 올바른 용어”라고 한다. '일본통신사'라는 용어 속에는 '일본으로 간 통신사'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본다. 더 나아가 미노와 요시쓰구(三輪吉次) 교수는 대마도 기록에서도 “통신사라고 적기보다는 신사(信使)라고 적은 것이 훨씬 더 많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그렇다면 우리가 '통신사'라고 알고 있는 용어를 앞으로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조선통신사', '일본통신사', '신사' 역사 연구에서 용어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기에 더욱 그렇다.

한일 양국의 민간단체도 등재 신청을 준비하면서 용어를 '통신사'로 할 것인지 '조선통신사'로 할 것인지를 놓고 심도 있게 논의하였음은 물론이다. 더구나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유네스코에 신청하는 것이기에 이 용어의 문제는 더욱 중요했을 것이다. 그런데 “통신사의 명칭이 대체로 조선에서는 통신사, 신사, 일본통신사로, 그리고 일본에서는 조선통신사, 조선통사, 신사로 불렸다”고 보아도 크게 잘못은 아니다. 일본 입장에서 보았을 때 '조선에서 온 통신사'가 될 것이고, 조선 입장에서 볼 때 '일본으로 간 통신사'가 될 터이니, 그냥 '통신사'로 하면 가장 중립적이어서 무난하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통신사'가 어느 시대 무슨 임무를 띤 사신이었는지를 알 수 없게 된다는 점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한글로만 적게 되면 이것이 사신을 의미하는 통신사(通信使)인지, 아니면 통신 회사를 뜻하는 통신사(通信社)인지 도무지 혼란스럽게 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조선시대(에도시대) 통신사'라든지 '조선이 파견한 통신사(일본에 온 통신사)'라는 식으로 풀어쓰기도 번거로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미 한국과 일본 두 나라에서 익숙할 정도로 고착된 개념이자 용어”라는 현실론의 입장에서, 이번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대상물의 명칭이 '조선통신사' 기록물로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2. 통신사행의 임무

이번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대상으로 '조선통신사' 기록물을 신청할 때 그 시기를 1607년부터 1811년으로 한정하였다고 한다. 아마도 그 이유는 이 시기의 각 사행에 대한 기록이 그 이전 시기에 비하여 양과 질 모두에서 풍부하기 때문일 것이다.

초기 세 차례 사행(1607, 1617, 1624년)의 조선 측 명칭은 엄밀하게 말한다면 '통신사'가 아닌 '회답겸쇄환사(回答兼刷還使)'였다. 이것은 그 뒤 1636~1811년의 아홉 차례 사행 명칭이 모두 '통신사'였던 것과 대조된다. 이 점을 강조하여 임진·정유 왜란 이후 조선이 일본에 파견한 '통신사'는 12회가 아니라 9회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런데 '통신사'를 '회답겸쇄환사'까지 포괄한 넓은 의미로 해석한다면 사행 횟수는 총 12회가 된다.

사신의 행차, 즉 사행(使行)의 명칭이 '통신사'인가 '회답겸쇄환사'인가 하는 것은 그 사행의 임무와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만일 '통신사'라면 통신(通信), 즉 '믿음이 양국 간에 통하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주된 임무가 될 것이다. 이에 반해서 '회답겸쇄환사'라고 하면 그들의 임무는 회답(回答)과 쇄환(刷還)이라고 하는 두 가지에 주안점이 두어지게 마련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회답이란 다름 아닌 일본의 요청에 대한 회답을 가리킨다. 즉 이것은 도쿠가와 막부[徳川幕府]의 쇼군[將軍]이 통신사 파견을 조선왕조에 요청한 것에 대하여 회답을 한다는 의미이다. 구체적으로는 조선 국왕의 국서를 전달하고 그에 대한 일본 막부 쇼군의 회답국서를 받아오는 것이 사행의 첫 번째 임무였다. 그들의 두 번째 임무는 일본에 가서 피로인(被擄人)을 조선으로 데리고 오는 쇄환이었다. 피로인은 포로와 구분되는 개념이다. 흔히 포로라고 할 때는 전쟁에 패하여 붙잡힌 군인을 말한다. 이와 달리 피로인이라고 하면 전쟁에 참가하지 않은 민간인이 붙잡힌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임진·정유왜란 때 일본에 끌려간 민간인을 조선으로 데려오



는 것이 사행의 중요한 임무였음이 위의 사행 명칭 속에서도 드러난다.

1607년과 1617년 사행 때 조선 정부가 사신을 파견하기 직전에 그 명칭을 '회담겸쇄환사'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조선 국왕(1607년은 선조, 1617년은 광해군)의 의지가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조선의 사행 명칭이 '회담겸쇄환사'로 정해질 때, 사전에 조선왕조와 일본 막부 사이에 협의를 거치거나 조정을 한 것은 아니다. 조선 국왕의 국서에 사행 명칭이 '회담겸쇄환사'라고 적혀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일본에 간 통신사가 조선 정부의 이러한 정책 의지를 일본 막부 측에 구두로 전달하였음은 물론이다. 막부 측이 피로인의 쇄환에 협조한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조선으로 되돌아온 피로인의 숫자가 피로인 전체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적었다. '1607년 여우길(呂祐吉) 일행이 데리고 온 피로인 1,418명'은 전체 피로인 10만 명(또는 2~3만 명)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숫자이다. 게다가 일본에서 조선으로 데려온 뒤 조선 정부가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피로인들을 지원한 것도 아니었다고 한다(이훈 2014, 2015).

1636년 이후 사행 명칭이 '통신사로 바뀐 뒤에도 여전히 '피로인 쇄환' 임무가 그들에게 주어졌다. 1643년 사행 때까지도 그것이 이어졌는데, "6명은 조선으로 돌아오다가 도중에

죽고 14명만 조선 땅을 밟았다"고 『통신사기록』에 적혀 있다. 이것을 보면 조선 정부가 기대했던 외교성과가 '피로인 쇄환' 실적이라고 하는 측면에 한정해 본다면 보잘 것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조선 정부는 1655년 사행 때도 '피로인 쇄환'을 통신사에게 지시하였다고 한다(김동철 2013). 전쟁이 끝난 지 두 세대가 지난 뒤라서 피로인 쇄환 실적을 달성하기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조선 정부가 통신사에게 '피로인 쇄환' 임무를 부여한 것은 실제로 실적을 기대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본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조선 사회 내부에 존재했을 조선 조정이나 일본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조선 정부가 그것을 피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3.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

'외교기록' 중 『통신사기록』은 초기 기록을 담지 못하고 있는 한계점이 있다. 정미사행(1607), 정사사행(1617), 갑자사행(1624), 병자사행(1636) 이렇게 네 차례 사행 기록은 전란으로 소실되었다고 한다. 현재 전하는 『통신사기록』은 1643년 계미사행부터 마지막 1811년 신미사행까지 8회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이다.

'외교기록' 중 또 하나의 축을 이루고 있는 「국서」도 한계점이 없지 않다. 진본·원본이 적고 현재 남아 있는 것도 대부분 필사본이라고 하는 점, 일본 막부 쇼군의 「회답국서」 원본이 발견된 사례가 거의 없다고 하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른바 사료제약(史料制約)을 뛰어 넘으려는 역사 연구자의 노력이 더욱 필요한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조선의 서계(書契)와 연계한 통신사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하다. 현재 국사편찬위원회가 다수 소장하고 있는 조선의 서계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서」가 조선 국왕과 일본 막부 쇼군 사이에 주고받은 외교문서라고 한다면, 서계는 조선의 예조(禮曹), 동래부(東萊府) 등과 대마도의 도주(島主), 즉 대마번주(對馬藩主) 사이에 교환된 외교문서를 말한다. 지금까지 서계의 형식과 성격에 대해서는 이훈(李薰)의 연구가 거의 독보적이다. 통신사 연구와 관련해서도 서계의 내용 분석에 치중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하겠다.

둘째, 조선의 정치·경제·사회와 연계한 통신사 연구에 더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국서」가 위조된 시기, 그리고 『통신사기록』에서 공백기로 남아 있는 초기의 통신사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 실록이나 비변사등록, 승정원일기 등 조선의 관한 사료를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조선의 정치·경제·사회와 통신사를 연계시키는 연구방법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조선의 지역과 연계한 통신사 연구에 더 주력할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일본에서는 통신사가 거쳐 간 지역마다 통신사 관련 자료를 발굴하여 분석한 연구가 꽤 있는데,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도 통신사를 지역사와 연계시킨 연구는 많지 않다. 부산 지역의 통신사에 대한 관심은 매우 크지만, 그 나머지 지역의 경우는 부산과 격차가 크다. 《영천과 통신사》(2014)라는 단행본으로 엮어진 영천 지역의 경우를 제외하면 이와 관련된 사례가 드물다. 최근 다수의 문집(文集)이 국역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그 결과를 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사 관점의 통신사 연구도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국사편찬위원회, 1971, 《邊例集要》上·下, 탐구당.
김동철, 2013, 『국역 통신사등록』(1) 해제, 《국역 통신사등록 1》(국역 정경주, 감수 이원표, 부산자료총서 20),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김문자, 2012, 〈임진왜란기의 강화교섭과 加藤清正 : 조선왕자의 送還문제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42, 한일관계사학회.
김문자, 2004, 〈임진·정유재란기의 조선 피로인 문제〉, 《중앙사론》 19, 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나카오 히로시 지음, 손승철 옮김, 2012, 《조선통신사》, 소화.
민덕기, 2007, 〈전근대 동아시아 세계의 韓·日 관계〉, 경인문화사.
민덕기, 2008, 〈임진왜란기 납치된 조선인의 일본 잔류 배경과 그들의 정체성 인식〉, 《한국사연구》 140, 한국사연구회.
손승철·김강일, 2010, 〈조선시대 한일관계사료해제〉, 《중·근세 동아시아 해역세계와 한일관계》, 한일관계사연구논집편찬위원회 편, 경인문화사.
이훈, 2011, 〈외교문서로 본 조선과 일본의 의사소통〉, 경인문화사.
이훈, 2014, 〈임란 이후 '회담겸쇄환사'로 본 대일본외교전략—선조대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49, 한일관계사학회.
이훈, 2015, 〈광해군대 '회담겸쇄환사'의 파견(1617년)과 대일본외교〉, 《한일관계사연구》 52, 한일관계사학회.
정연식, 1991, 『《通信使聘錄》 解題』, 《通信使聘錄 1》(규장각 자료총서 금호시리즈 대외관계편), 서울대학교 도서관.
하우봉, 1986, 〈새로 발견된 일본사행록들〉, 《역사학보》 112, 역사학회.
하우봉, 2006, 〈해제〉, 《신편 국역 예조 전각사 변례집요》, 한국학술정보(주).
허경진 엮음, 2014, 《영천과 조선통신사—한일 간의 벽을 허물다—》, 보고서.
仲尾宏, 2007, 《朝鮮通信使—江戸日本の誠言外交—》, 일본 岩波新書.

1763년 통신사행 사람들, 불귀의 객이 되다

1763년通信使の人々、帰らぬ人となる

通信使が険しい海を渡って、日本に行つて来ることは容易くなかつた。1763年の通信使(正使趙曦)の時には4人が死亡した。俞進源(俞進復)は事故で病死、金漢重(金漢中)は病死、李光河(李光夏)は自殺した。崔天宗は日本人である鈴木伝蔵によって殺害された。通信使の歴史上、初有の事件であつた。現在、大阪の竹林寺には金漢重の墓碑があり、彼と崔天宗の位牌も安置されている。



김동철 + 부산대 사학과 교수
金東哲 + 釜山大 史学科 教授

1763년 통신사(정사 조엄)는 8월 3일 국왕 영조에게 하직을 고하고 서울을 떠난 후, 다음 해 1764년 7월 8일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것을 고하였다. 470여 명의 사행원이 11개월 정도 걸린 대장정이었다. 이 사행은 4명의 사망자를 낸 죽음의 길이 되었다. 조엄 『해사일기』, 남옥 『일관기』, 성대중 『일본록』, 원중거 『승사록』, 『비변사등록』, 『승정원일기』, 『전객사일기』 등 자료를 통해, 사건과 사고의 전모를 들여다 본다.

01 바다의 신에게 기도하다

1763년 10월 6일, 6척의 통신사 배가 부산을 떠나 쓰시마로 향했다. 험한 바다를 건너 낯선 일본 땅을 갔다 오는 통신사의 긴 여정은 힘든 사행길이었다. 9월 8일에는 부산진 영가대에서 해신제를 지냈다. '큰 바다(大海)의 신'에게 사나운 바람을 잠재우고, 고래와 악어를 진정시켜, 무사히 다녀오기를 간절히 빌었다. 자연은 인간의 기원을 쉽게 용납하지 않았다. 첫 도착지 사스나로 가는 도중, 파도 때문에 부사가 탄 배(기선)의 키가 부러지고 돛이 부서졌다. 정사선 기선도 키가 부서졌다. 뱃멀미 하는 사람이 속출하고, 토하고 쓰러지지 않는 이가 없을 정도였다.



조엄

02 부산의 장교 유진원[유진복], 쓰시마에서 사고로 죽다

통신사는 10월 11일 사스나를 출발하여 오우라[大浦]에 도착했다. 역풍 때문에 오우라에서 8일 동안 머물렀다. 그만큼 날씨가 좋지 않았다. 11일 밤 비바람 때문에 정사의 짐을 실은 짐배(복선)의 닻줄이 끊어졌다. 배가 떠다니다 부사선 복선에 부딪혔다. 부사선 복선장 유진원(俞進源, 또는 俞進復)이 배를 살피다가 선실에서 떨어져 가슴과 겨드랑이를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어혈(瘀血)이 내장까지 들어가 침과 약이 소용 없었다. 그는 10월 30일 후추[府中, 현 이즈하라]의 세이잔지[西山寺]에서 사망하였다. 당시 46세였다. 첫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11월 1일 정사 조엄은 상구(喪柩)를 보낸다는 장계를 보내면서, 동래에서 장례를 치러 주도록 했다. 남옥은 “함께 배를 탄 오백 명이 친척처럼 슬퍼하며, 조출한 과일과 정갈한 밥으로 충정을 고하니 부디 고향으로 편히 돌아가라”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을 지었다. 악공인 정선의 장복삼과 동래의 유원봉, 격군인 영덕의 유돌암과 부산의 손귀태도 병이 나서 같이 갈 수 없으므로, 후추에서 조선으로 같이 보낸다고 보고하였다.

03 부산 초량의 소동 김한중, 오사카서 병들어 죽다

사행원이 모두 에도까지 가는 것은 아니다. 백 명 정도는 오사카에 머물면서, 귀국 준비를 하였다. 1764년 2월 19일, 오사카를 떠나 에도에 머물던 통신사에게 비보가 전해졌다. 부산 초량의 소동 김한중(金漢中, 金漢重)이 병으로 2월 10일(또는 9일) 죽었다는 것이다. 그는 오사카 도착 전에 이미 병이 심하여, 오사카에서 배에 머물렀다. 병이 깊어지자 요양을 겸해, 가까운 지쿠린지[竹林寺]로 옮겼지만 끝내 사망한 것이다. 당시 그의 나이 22살이고, 고향에는 어린 두 아들이 있다고 한다.

오사카 죽림사



죽림사 내에 있는 김한중 묘비



죽림사 내에 있는 김한중과 최천종의 위패



04 나주의 격군 이광하, 미처 자살하다

정사 기선에서 노젓는 나주 출신의 이광하(李光夏, 李光河)는 광증(狂症)이 발병하였다. 포구의 촌가(村家)에 두고 그의 친척으로 하여금 돌보게 했다. 그는 칼로 친척을 찌른 후, 자신의 목을 찌르고 물에 뛰어 들었다. 일본인이 구하여 목숨은 건졌다. 병이 조금 낫자 4월 29일 정사 복선으로 옮겨 타게 했는데, 저녁에 병이 다시 발생하였다. 목을 찌른 후유증으로 금창(金瘡)이 크게 생겨서 4월 30일 사망하였다.

05 대구의 도훈도 최천중, 오사카서 살해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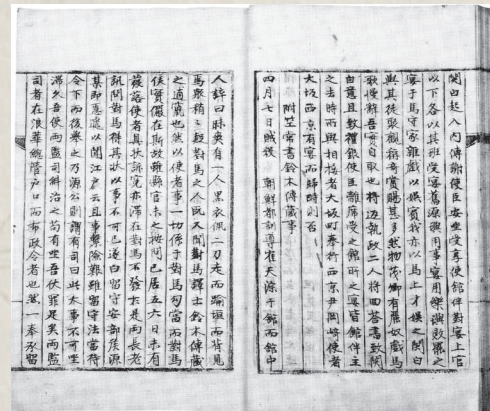
최천중은 조엄이 경상감사로 근무 당시 대구감영 장교였다. 병서를 읽을 줄 알고 영리한 까닭에 도훈도를 맡아 통신사에 참여하였다. 귀국길인 1764년 4월 5일, 통신사는 오사카에 도착하였다. 숙소는 니시혼간지[西本願寺] 쓰무라[津村] 별원이었다. 4월 7일, 최천중이 일본인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가 자고 있는데, 한 일본인이 가슴을 누르고 목을 질렀다. 최천중은 칼을 뽑고 그 자 뒤를 쫓았지만, 잡을 수 없었다. 조엄은 의원인 이좌국(李佐國)과 성호(成灝)를 불러 치료하게 했으나 끝내 효험이 없었다. 그는 날이 밝을 무렵 숨을 거두었다.

칼은 세 개의 모가 나고, 두 개의 칼날이 있는 창포도 같은 칼로, ‘어영(魚永)’이란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조선측은 일본 통역관에게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다. 일본이 제공하는 식자재 반입을 금지시키고, 시를 주고받는 일도 폐기하라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였다.

다음 날 일본측은 재검이 있을 것이므로, 시신을 거두지 말라고 하였다. 그러나 검사하러 오지 않았다. 13일에는 김한중의 관을 맡겨 놓은 절에 빈소를 차렸다. 일본측은 사건이 발생한 지 7일 만에 답을 주었는데, 사건의 진상을 속이려고 하였다. 통역관 스즈키 텐조(鈴木傳藏)가 범인이라는 것이 14일 조선측에 전달되었다. 도주하던 범인은 18일 체포되어, 5월 2일 나니와[浪華]강 하류의 월생도(月生島)에서 참수되었다. 그의 나이 22세였다.

오사카 본원사
쓰무라 별원



성대중의 일본록에 수록되어 있는 최천중의 기사

범행 동기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최천중이 거울을 잃어버리고 덴조를 의심하여 내놓으라고 하면서, “일본인은 도둑질을 잘한다”고 하자, 덴조가 “조선인이 도둑질을 잘한다”고 욕을 하였다. 최천중이 분노하여 말채찍으로 그를 때리자, 원한을 품고 찔러 죽였다. 둘째, 4월 6일 저녁에 덴조가 밥을 나누어 달라고 하였는데, 최천중이 나누어 주면서 젓가락을 주지 않았다. 그가 달라고 하니 최천중이 주지 않을 뿐 아니라 말채찍으로 어깨를 두세 대 때리자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변고를 일으켰다.

그러나 최천중 자신은 일본인과 아무런 다툼도 없이, 갑자기 화를 당했다고 하였다. 살해 동기는 정확하지 않았다. 최천중 피살 사건으로 통신사는 29일 동안이나 오사카에 머물렀다.

06 사후 처리, 기억의 전승과 추모 공간

최천중을 살해한 범인은 죽었지만, 사행원들도 단속을 제대로 못한 책임을 면할 수 없었다. 일본에서 온 보고를 접한 조정은 책임을 물어, 삼사의 관직을 삭탈할 것을 논의하였다. 7월 8일 통신사는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것을 왕에게 보고하였다. 이날이 가을 제삿날이라서 조정에서는 최천중 일을 언급하지 않았다. 삼사는 관직 삭탈은커녕 임무를 완수한 공로 때문에 품계가 올랐다.

영조는 1764년 6월 7일 전교를 내렸다. 최천중은 경상감영이 특별히 홀전(恤典)을 거행하고, 그 아들은 감영에서 장관(將官)으로 임용하도록 했다. 격군 이광하, 소동 김한중은 전라감영과 경상감영이 각각 홀전을 거행하도록 했다. 세 사람의 장례 물품도 지급하도록 하였다.

김한중이 죽은 교토 지쿠린지에는 「김한중묘」라고 쓴 비가 서 있다. 언제 세워졌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지쿠린지에는 「이조통신사 김한중 최천중 영위」라고 쓴 위패가 모셔져 있다. ‘조선’이 아니고 ‘이조’다. 1984년 2월 5일 만든 것이다. 두 사람이 죽은 지 220년 뒤다. 위패 뒤에 적힌 2월 10일은 김한중이 죽은 날이다. 김한중 묘비 내용을 위패에 그대로 적은 것이다. 일본에서는 실록소설, 가부키[歌舞伎], 조루리[浄瑠璃] 등 다양한 모습으로 최천중 사건이 쓰여지고, 유포되고, 상연되었다. 특히 가부키와 조루리는 1767년 이후 1864년까지 반복해서 상연되었다. 최천중 살해사건은 통신사 역사에서 가장 특이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조선통신사' 한국과 일본을 달리다

父の「朝鮮通信使」、
韓国と日本を駆ける



신이화 + NPO법인 '신기수와 조선통신사를 연구하는 청구문화홀' 이사
辛理華 + NPO法人「辛基秀と朝鮮通信使を研究する青丘文化ホール」理事



국립근대미술관 필름센터 제공

父、辛基秀が、1979年に制作した歴史ドキュメンタリー映画『江戸時代の朝鮮通信使』は、朝鮮通信使の歴史的意義と日韓文化交流の事実、初めてスポットを当てた記念碑的作品である。制作当時、文部省選定映画となり大きな話題となった。昨年、韓国語字幕が完成。冷え込んだ日韓関係をよそに、映画はソウルから東京まで両国を駆け抜け、再び私たちに「善隣友好」の記憶を蘇らせてくれた。「日韓の垣根を超え、平和・友好の絆を深めたい」―朝鮮通信使研究に生涯を捧げた父の願いは、制作から36年経っても、変わらぬ重みをもって語りかけてくるようだ。

인생을 바꾼 두루마리 그림 하나

1970년대 초반, 오사카의 고서(古書) 시장에서 만난 두루마리 그림 하나가 한 남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다. 조선통신사 행렬을 바라보는 에도시대 일본인의 호기심과 동경에 가까운 눈동자에 마음을 빼앗긴 남자는 이를 영화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품었다. 임진왜란으로 불구대전의 원수가 된 두 나라가 전쟁이 끝난 지 불과 10년도 안돼 어떻게 국교를 회복하게 됐을까? 일본 민중은 조선의 사절단을 어떻게 맞이했을까? 일그러진 역사교육을 받아온 그는 눈앞이 확 트이는 느낌을 받았다. 몇 년 후, 전체 길이 120m나 되는 선명한 색깔의 두루마리가 또 하나 발견됐다. 두루마리에 그려진 것은 1711년에 일본을 방문한 제8회 조선통신사 일행이었다. 안내를 맡은 사무라이 등을 포함해 총 4800명이 참가한 장대한 행렬이었다. 일행의 생생한 모습과 표정을 잡은 이 작품은 그야말로 당시의 일대 기록영화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는 이 두루마리를 낱실로 삼고 각지에서 발견된 그림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축제를 씨실로 삼아 역사를 되살리는 기록영화를 만드는데 착수했다.

힘들었던 촬영은 '치유의 과정'

촬영진은 쓰시마에서 오사카, 에도(도쿄)까지 통신사가 지나간 곳을 방문하고, 통신사 자료가 발견될 때마다 카메라를 돌렸다. 그러나 조선통신사라고 해도 당시에는 이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촬영은 곤란에 곤란을 더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하나를 연결해가는 과정은 메이지유신 이후 새롭게 생긴 상처를 치유해가는 작업이었다. 그는 당시의 심경을 “마치 ‘현대의 통신사’ 역할을 짊어진 것 같았는데, 이는 역사가 갖고 있는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내게 주어진 사명인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교토 히가시아마에 있는 센뉴지(泉桶寺)는 황실과 인연이 있는 절인데 그는 이곳에 있는 ‘조선국사환대도 병풍(朝鮮國使歡迎圖屏風)’을 촬영하기 위해 7번이나 찾아간 끝에 간신히 촬영허가를 얻었다. 당대 일본화의 대가인 가노마스노부가 1682년에 그린 화려한 8폭 병풍이었다. 이 병풍은 조용한 감동을 일으키며 영화의 마지막을 장식한다.

영화 '에도시대의 조선통신사' 한국어판 완성

‘그’는 1931년 교토에서 태어나신 필자의 아버지 신기수 선생이다. 1979년에 만들어진 다큐멘터리 영화 ‘에도시대의 조선통신사’(16mm, 50분, 국립근대미술관 필름센터 소장)은 지난해 한일국교정상화 50년, 전후 70년이라는 의미 있는 해에 디지털화 됐고 한국어 자막판도 완성됐다. 한국어 자막판 제작과 상영까지의 과정은 쉽지는 않았지만 다행히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도움을 받고 한일 양국에서 상영할 기회를 얻었다. “한일의 울타리를 넘어 평화우호의 정을 깊게 하고 싶다”는 아버지의 소원은 영화를 만든 지 36년이 지났어도 변함 없이 묵직한 울림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에도시대의 조선통신사’는 일본 문부성 선정 영화로 큰 화제가 됐던 작품이다. 첫 상영 이듬해부터 일본의 역사 교과서에 ‘조선통신사’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한일 양국이 조선통신사를 주목하게 된 계기를 만든 기념비적인 영화이기도 하다. 제작 당시 아사히신문의 사설로까지 거론돼 일본 각지에서 ‘요원의 불길이 일 듯’ 상영된 것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최



1993년 런던에서 아버지와

근 한일 관계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이 영화는 다시 ‘선린우호(善隣友好)’의 기억을 떠올리게 해주었다.

2015년 한국과 일본을 달린 영화

2015년 봄, 부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문섭)의 주최로 한국에서 처음으로 상영하게 되었다. 4월 조선통신사역사관을 시작으로 5월에는 영화의 전당에서 상영했다. 당일 비가 많이 왔는데도 서울에서 5시간이나 운전해서 오신 분도 계셨다. 질의 응답시간에는 강남주 전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한태문 부산대학 교수, 어머니 강학자 여사(NPO법인 '신기수와 조선통신사를 연구하는 청구문화홀' 이사장)가 참석하여 관객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국교정상화 조인식이 열린 6월에는 와카미야 요시부미 씨(전 아사히신문 주필)와 이시카와 요시미 씨(작가)의 성원으로 도쿄에서의 재상영이 실현됐다. 국제문화회관에서 열리고 있는 연속 세미나 ‘그래서 한중일-인연의 재발견’의 4회 주제인 ‘보자, 얘기하자, 조선통신사의 낭만’(일본국제교류센터 주최)의 주인공이 바로 이 영화였다. 상영 이후의 강연에서는 아버지가 생전에 존경해 하지 않았고, 이 영화의 한국어 자막을 감수해 주신 강재언 선생님이 연사로 나서 청중을 사로잡았으며, 아버지와 잘 알고 지낸 최양일 감독이 이 영화가 가진 힘에 대해 얘기하면서 행사장은 관객과 그들의 열기로 가득했다. 6월 한국에서는 동서대 일본연구센터의 정구중 소장(현 고문)과



2015년 6월 30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한일의원연맹의 김태환 회장대행의 노력 덕분에 서울에서의 첫 상영이 실현되었다(‘조선통신사 선린외교의 재조명’ 동서대·일본연구센터·한일의원연맹 공동주최). 장소는 국회 헌정 기념관이었다. 개회식에서는 영광스럽게도 벅쇼 고로 주한 일본대사, 공로명 동서대 석좌교수(전 외교부 장관), 서청원 한일 의원연맹 회장 등 한일 양국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관객들에게 이 영화와 아버지의 업적을 소개해 주었다. 상영에 앞서 1980년 도쿄에서 이 영화를 봤다는 정재정 서울시립대 교수가 강연을 했다. 한국 각지에서 오신 분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일본기업 CEO들이 “현재 우리에게 주는 힌트로 삼겠다”며 열심히 메모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아버지와 교류를 해왔던 최서면 국제한국연구원 원장과 강남주 전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도 함께 해주셨다. 영화가 만들어지고 무려 36년의 세월이 지나 처음으로 실현된 서울 상영은 특별한 하루가 되었다.

여름에는 이 영화가 ‘피스&그린 보트’(일본의 피스보트와 한국환경재단의 콜라보레이션)에 승선했다. 한일 양국의 참가자 1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앞 바다에서 상영되었다.

가을에는 조선일보 주최의 ‘두 바퀴로 달리는 신조선통신사’ 행사에 참가한 한일 50명의 사이클리스트들이 이 영화를 감상했다. 이들과 함께 영화도 한국과 일본을 달렸다.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이 오사카역사박물관을 방문해 그곳에 소장되어 있는 ‘신기수 컬렉션(조선통신사 자료 100여 점, 민화 병풍 30여

점 등 총 140점) 가운데 1711년 두루마리 그림 등을 감상했다. 부산박물관의 특별전시회 ‘조선시대 통신사와 부산’에서도 영화가 상시 상영되었고 영화에 나오는 실제 작품을 전시하여 관람객들이 감상할 수 있었다. 오사카역사박물관 소장 ‘신기수 컬렉션’의 주요 작품 6점도 선을 보였다. 생전, 아버지가 몇 번이나 방문했던 부산박물관에는 신기수 개인 컬렉션 작품 6점이 소장되어 있다. 그 밖에도 국제심포지엄, 대학, 기업, 시민단체에서 상영한 것을 여기서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이 모든 것이 아버지가 원했던 “과거로부터 미래를 비춘다”는 말을 실현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리고 2016년

올해 1월에는 ‘신기수 문고’가 있는 규슈대학에서, 3월에는 이와테현, 미야기현에서 상영을 했다. 해외에서는 아버지와 인연이 있었던 영국 런던대학과 네덜란드 라이덴대학에서도 상영 요청이 있어 앞으로는 영어자막판도 필요할 듯하다.

또한 2월 17일 오사카역사박물관에서 특집전시회 ‘신기수 컬렉션-조선통신사와 조선의 그림’(오사카역사박물관·오사카 한국문화원 공동주최)이 막을 올렸다. ‘신기수 컬렉션’은 영화를 계기로 각지에서 발굴된 자료를 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수집한 것이다. ‘신기수 컬렉션’은 조선통신사의 존재가 감춰져 있던 시대, 사회가 가난해 역사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던 시절에 조선통신사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가교가 되겠다는 아버지의 사명감과 열정이 담겨 있다. 첫날부터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전시회를 관람하였다. ‘에도시대의 조선통신사’도 상영되었다.

마지막으로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움직임도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여기에 오사카역사박물관 소장 ‘신기수 컬렉션’의 작품 11개(14점)를 비롯해 한국과 일본에 있는 신기수 컬렉션이 다수 포함됐다고 들어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 ‘신기수 컬렉션’의 모든 것이 한국에서 공개되어 많은 분들이 한일우호의 역사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를 기원한다.

간사이에서 한국을 걷다

関西で韓国を歩く



최하수 + 봉생문화재단 부이사장
崔和秀 + 奉生文化財団 副理事長

日本に存在する韓国文化は、両国の長い葛藤の中でも輝いている。特に、京都・奈良・大阪など関西に散在している韓国文化の遺跡は、日韓両国の長くて深い関係性を証拠立てている。その文化の現場を一つずつ訪れ、詳しく案内する『関西で韓国を歩く』が発行された。語り手は大阪韓国学校である金剛学園(小中高)の教師と生徒たちである。関西は、古代に朝鮮半島から来た人々を意味する「渡来人」とその子孫によって作られた寺院や、仏像、仏塔、壁画など多くの文化財が残っている。金剛学園のソン・シヨル校長は、「日本で生まれて成長した在日韓国人の青少年たちが、自分たちの母国である韓国と日本の関係性の深さを知り、誇りを持って生きてほしい」との思いからこの本を出すことになった」と述べた。

일본 속의 한국문화는 두 나라의 오랜 갈등 속에서도 여전히 빛나고 있다. 특히 교토[京都]·나라[奈良]·오사카[大阪] 등 간사이[関西] 지방에 퍼져 있는 한국 문화 유적들은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깊고 오랜 연관성을 생생하게 입증해준다. 바로 이들 문화 현장을 일일이 답사하며 둘러보게 해주는 안내서 『간사이에서 한국을 걷다』가 발간됐다. 그 주인공은 오사카 한국학교인 금강학원(초·중·고) 교사와 학생들이다.

간사이 지방은 고대 한반도 도래인(渡來人)과 그 후손들 손에 의한 사찰과 불상, 탑, 벽화 등의 문화재가 곳곳에 산재한다. 금강학원 성시열 교장은 “일본에서 나고 자란 재일동포 청소년들이 자신의 뿌리인 모국과 일본의 깊은 연관성을 깨달아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자 책을 펴내게 됐다”고 밝혔다. 이 책은 올해 4월 학기부터 금강학원 중학교의 ‘한국문화’ 수업 교재로 활용된다고 한다.

『간사이에서 한국을 걷다』라는 이름 그대로 누구나 책을 들고 걸어가며 우리 조상들의 숨씨로 이루어진 문화재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사진과 지도, 용어 정리와 해설, 교통 안내 등을 곁들였다. 교토 고류지[広隆寺]의 일본 국보 1호 ‘미륵보살반가사유상’부터 한국인의 정신과 혼이 곳곳에 배어 있는 아스카[飛鳥] 일원, 그리고 한류 문화의 원조 역할을 했던 조선통신사의 발자취 등을 담고 있다. 그런 한편으로, 아픈 역사의 기록들도 있다. 임진왜란 때 조선인의 코와 귀를 베어와 물었다는 귀무덤, 귀국선 우키시마[浮島]호 폭침 희생 조선인 노동자 추모비 등이 그러하다. 집필에 참여한 한 교사는 “진실을 가감 없이 알리자는 취지에서 우호와 친선의 상징인 조선통신사가 왕래했던 평화로운 시기뿐만 아니라 제국주의 침략으로 갈등과 고통이 격심했던 시기도 빠짐없이 수록했다”는 것.

지금으로부터 33년 전인 1983년 5월, 필자도 ‘간사이에서 한국을 걷다’처럼 여러 날에 걸쳐 체험한 바 있다. 교토·나라·오사카 등 간사이 지방에 산재한 우리 문화의 자취들을 일일이 둘러본 것이다. 교토의 고류지는 물론, 나라 도다이제(東大寺)·호류지(法隆寺)·쇼소오인(正倉院), 오사카의 시텐노지(四天王寺) 등 ‘일본 속의 한국문화’를 현장 취재, 보도(부산일보 1983년 5월 20일~6월 15일자)했었다.

필자의 취재를 도와준 이는 한일관계사를 집중연구하던 김의환 교수(奈良帝塚山大)였다. “아스카는 일본인들 못지않게 한국 사람들에게 더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땅이다”고 전제한 그이는 “아스카 등지서 만나는 하나하나의 문화재들은 한국인들이 일본문화를 가르치고 키운 스승이라는 사실을 입증한다”며, 특히 일본 최고(最古) 사찰이자 최초의 불상을 모신 아스카테라(飛鳥寺)를 눈여겨보라고 했다.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것은, 일본의 여느 유적들은 한국에서 받은 영향을 굳이 드러내지 않으려 하는데, 아스카테라는 백제인에 의한 사찰임을 은근히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것이었다. 『일본서기』 등 일본 역사기록에 명시된 사실(史實) 때문이리라. 원래 사찰은 불타고 대불(大佛)만 모신 여염집 같은 안고인[安居院]만 남아 있지만, 아스카테라는 한류의 원조이자 상징으로서 더욱 빛나고 있다.

2016 조선통신사축제

“기억하고, 잇고, 전하다”

2016朝鮮通信使祭り- 覚えて、繋げて、伝える

부산문화재단 국제협력팀 + 釜山文化財団 国際協力チーム

5월 5일(목) 조선통신사역사관 옆 영가대에서의 ‘영가 영제’를 시작으로 5월 6일(금)부터 5월 8일(일)까지 3일간 용두산 공원, 광복로·구덕로 일원, 국립부산국악원, 국립해양박물관에서 “2016 조선통신사 축제”가 개최된다.

2016년 3월 30일(수), 한국 측 부산문화재단과 일본 측 조선통신사연지연락협의회가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한일 공동 등재를 위해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올해는 이러한 양국의 추진을 위한 활동 등을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등재 기원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한일 공동 등재 기원 행사’를 비롯하여 ‘조선통신사 한마당’, ‘성신교린의 밤’, ‘조선통신사 필담창화’, ‘한·일 문화교류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또한, 국립해양박물관에서 4월 19일(화)부터 5월 8일(일)까지 〈조선통신사, 세계인의 품으로〉 테마전을 개최한다. 국립해양박물관 소장 자료 등재 추진 4점과 함께 부산문화재단 소장 조선통신사 한지 인형 364점을 전시하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의 의미와 가치를 소개하고, 1711년 등성행렬도를 바탕으로 제작한 한지인형을 통하여 당시의 통신사행렬의 생동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축제의 하이라이트 ‘조선통신사 평화의 행렬’은 7일(토)에 개최되며, 용두산 공원에서 광복로 입구까지였던 행렬구간을 자갈치 교차로 입구까지 확대한다. 한일 양국의 예술단, 시민 참가자, 어린이 통신사 등 2,000여 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올해는 일본 기타큐슈의 쿠로자키 기온 아마가세[黒崎祇園山笠]팀이 참가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

2016 조선통신사 축제를 통하여 시민들과 함께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기원하고, 부산 지역만의 축제가 아닌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축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 특별 전시

「조선통신사, 세계인의 품으로」테마전

일시 : 2016. 4. 19. (화) ~ 5. 8. (일)

장소 : 국립해양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

내용 : 조선통신사를 테마로 한 기획전 개최



❁ 조선통신사 국제 학술 심포지엄

※ 조선통신사학회 공동 주관

일시 : 2016. 5. 6. (금), 13:00 ~ 18:00

장소 : 부산광역시청 12층 국제회의실

내용 :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한·일 공동 등재 관련 연구 발표



❁ 전통공연 - 조선통신사를 기억하다

일시 : 2016. 5. 6. (금), 15:00 ~ 16:30

장소 : 용두산 공원 특설무대

내용 : 조선통신사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기념공연



❁ 광장 행사 - 조선통신사 한마당

일시 : 2016. 5. 6. (금) ~ 5. 8. (일), 10:00 ~ 21:00

장소 : 용두산 공원 광장 및 광복로 일원

내용 :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구성



◆조선통신사 연고도시 관광물산전

일시 : 5. 6. (금) ~ 5. 8. (일)

◆조선통신사 필담창화

일시 : 5. 8. (일), 10:00 ~ 14:00



조선통신사의 밤 - 조선통신사를 잇다

일시 : 2016. 5. 6. (금), 18:00 ~ 20:00
장소 : 용두산 공원 특설무대
내용 : 3使입명식, 접영식, 해신제 및 예술단 공연



조선통신사 평화의 행렬 - 조선통신사를 전하다

일시 : 2016. 5. 7. (토), 14:30 ~ 18:00
장소 : 용두산 공원 ~ 광복로
내용 : 거리공연(13:00~14:00, 광복로 일원)
출발 세리머니(14:30)
행렬재현(15:00)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한일공동 등재 기원 - 소울(소통과 어울림)

일시 : 2016. 5. 7. (토) 18:00 ~ 20:00
장소 : 용두산 공원 특설무대
내용 :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한일 공동
등재를 기원하는 특별 기획 프로그램



만찬 - 성신교린의 밤

일시 : 2016. 5. 7. (토), 19:00 ~ 21:30
장소 : 코모도 호텔 그랜드볼룸
내용 : 참가 내 외빈 및 예술단체 상호 교류의 장



한·일 문화교류공연

일시 : 2016. 5. 8. (일) 17:00~19:00
장소 : 국립부산국악원 소극장
내용 : 국립부산국악원과 공동주관으로 선보이는
한일 예술단의 교류 공연

조선통신사 뉴스



2016년도 조선통신사 소식지 발간



2016년도 조선통신사 소식지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한일공동 등재를 기원하는 뜻에서 목차와 구성을 일부 변경하였다. 새롭게 구성된 소식지는 양국의 등재 목록 소개 및 홍보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번 봄호 표지 사진은 한국측 문화교류의 기록 중 '묵매도(墨梅圖)'와 여정의 기록 중 '숙종37년통신사행렬도(肅宗37年通信使行列圖)'이다.



대선주조,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힘을 보태다

(재)부산문화재단과 부산의 향토기업인 대선주조는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한일공동 등재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시원과 시원블루 보조라벨을 이용한 홍보에 나섰다. 이 라벨은 3월 중순부터 판매되는 소주 병 후면에 부착된다. 앞으로도 부산문화재단과 대선주조는 조선통신사와 관련한 사업에 더욱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상생 발전을 도모하도록 할 것이다.



시원 보조라벨



시원블루 보조라벨



통신사의 옷 이야기

일본인의 눈에 비친 조복(朝服)

通信使の服の物語

日本人の目に映じた「朝服」

日本の画家は「朝服」の特徴をよく表現し、全体的なイメージを実際の「朝服」のように描いている。ところで、朝服の胸背を描いて、梁冠の全体を金色に塗っていて、朝服の衣を袍のように表現している。さらに、朝服のまっすぐな襟を丸く表現するなど、細部的な表現においては多少の間違いが見られる。金色の梁冠、紅色の服、實際を基に描写された装飾品、動感にあふれる裾の動きなどから、朝服を観察している日本人画家の眼差しが感じられる。



이주영 + 동명대 패션디자인학과 교수
李珠英 + 東明大 ファッションデザイン学科 教授



그림 2 正裝服飾圖의 조복(국사편찬위원회(2005), 朝鮮時代 通信使 行列, p. 356)
그림 3 朝鮮人物旗杖轎輿之圖의 조복(辛基秀·仲尾宏(1993), 大系 朝鮮通信使 8권, p. 46)
그림 4 朝鮮人物正寫의 조복(辛基秀·仲尾宏(1993), 大系 朝鮮通信使 8권, p. 9)



조복(朝服)은 조선시대 문무관(文武官)이 입었던 관복(官服) 중 최고의 예복이다. 통신사행에서 조복은 삼사(三使)가 우리나라 왕의 국서를 일본 쇼군에게 전달하는 의식인 전명례(傳命禮) 때 입었다.

〈그림 1〉은 1768년에 그려진 이익정(李益正 1699~1782)의 초상화로써 당시의 조복 차림이 잘 묘사되어 있다. 〈그림 2, 3, 4〉는 1811년 신미사행 때 정사 김이교(金履喬)와 부사 이면구(李勉求)가 조복을 입은 모습이다. 〈그림 2〉는 필자 미상으로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되어 있고, 〈그림 3〉은 이가이 마사자네[猪飼正毅]의 작품으로 나고야시[名古屋市] 호사분코[蓬左文庫]에 소장되어 있으며, 〈그림 4〉는 곤도 시분[近藤子文]이 대마도에서 그린 그림을 모사(模寫)한 것으로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

〈그림 1〉과 〈그림 2, 3, 4〉를 비교해 보면, 일본 화가들은 조복의 특징을 잘 살려 전체적인 이미지를 실제 조복과 유사하게 묘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복식의 세부적인 표현에 있어서는 몇 가지 오류가 보인다.

첫째, 가장 두드러진 오류는 조복의 가슴과 등에 흉배(胸背)를 묘사한 것이다. 심지어 후수(後綬)를 흉배처럼 그리기도 하였다(그림 3). 흉배는 조선시대 문무관이 입는 단령의 가슴과 등에 부착하는 것이다. 일본 화가들은 흉배를 조선 관복의 전형적인 상징으로 이해하여 흉배를 단령이 아닌 다른 관복에 표현하기도 하였다.



그림 1 이익정 초상화(국립중앙박물관(2009), 한국박물관 개관 100주년 기념 특별전, p. 184)

둘째, 양관(梁冠)에도 오류가 적지 않다. 양관 전체를 금색으로 묘사하거나(그림 2), 양관의 뒤를 병풍처럼 감싸는 관이(冠耳)를 생략하기도 하였다(그림 4). 비교적 양관이 정확하게 묘사된 그림에도 검은 색 관정(冠頂) 위에 부착된 금선(金線)인 양(梁)의 수가 잘못 그려져 있다(그림 3). 양관은 품계에 따라 양의 수가 다르다. 정3품인 정사 김이교는 양의 수가 세 개인 삼량관(三梁冠)을 써야 하는데 오량관(五梁冠)으로 묘사되어 있다.

셋째, 조복의 의(衣)와 상(裳)을 하나의 포(袍)처럼 잘못 묘사하였다(그림 2, 3). 이러한 오류는 상을 입고 그 위에 의를 입는 조복의 착장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겹으로 보이는 실루엣만 보고 그랬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조복의 가장자리에 둘러싼 검은색 선(線)이 생략되는 오류도 보인다.

넷째, 조복의 옷깃을 잘못 그린 경우도 있다(그림 4). 조복의 옷깃은 원래 검은색의 곱은 깃인데, 이를 붉은 색의 둥근 깃으로 묘사하여 조복이 마치 흉단령처럼 보인다.

통신사의 복식 중에서 조복의 표현에 오류가 많은 것은 삼사만 조복을 입었고, 조복을 입는 상황 또한 제한적이어서 일본 화가들이 조복을 상세하게 관찰할 기회가 적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금빛의 양관, 선명한 붉은 색의 의와 상, 사실적으로 묘사된 패옥과 후수, 생동감 넘치는 풍성한 옷자락 속에서 조복을 바라보는 일본 화가의 시선이 느껴진다.